



한국어

복음을 실천하기: 2019 년 본당 모금 운동
주보 간지

생명의 나눔 주일 모금
3월 31 일 | 5월 5 일 | 6월 2 일

생명의 나눔 주보 간지

쉐어라이프 본당 모금 운동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본당 주보에 다음 안내문을 포함시켜 주십시오.

사순 제 1 주일부터 매주 주보에 넣을 간지 이외에도 자동이체와 자원봉사자 모집에 대한 홍보를 포함해 1 월과 2 월 사이 (한달에 한번)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는 안내문을 포함했습니다.

이 안내문은 인쇄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안내문은 웹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프랑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타밀어, 베트남어와 중국어 (간체와 번체) 등 여러가지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sharelife.org/Public/Resources

쉐어라이프를 통한 복음 실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크리스 드미트렌코
홍보 담당

2019년 1월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복음을 실천하기

쉐어라이프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에서나 40 개가 넘는 기관을 통해 수천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데 사용이 됩니다.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사람을 위한 상담, 배고픈 사람을 위한 따뜻한 한끼의 식사, 고등학교를 마치기 위해 애쓰는 나이 어린 엄마를 도와주는 것 등, 도움을 받기 위해 쉐어라이프 기관을 찾는 사람들의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19년도 본당 모금 운동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정성어린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2월

여러 가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 돌봄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플로랜스는 빙판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오른쪽 고관절에 금이 가고 허벅지 대퇴골과 발목이 부서지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물리치료 비용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았던 그녀는 다시는 걷지 못할 것만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쉐어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활기찬 생활을 위한 엘 에이 센터 (LA Centre for Active Living)에 의뢰를 한 지 일주일만에 플로랜스는 그 센터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교실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는 그동안 의지하던 휠체어를 버리고 워커를 사용하다가 드디어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도움으로 플로랜스는 다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쉐어라이프에 보내주시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각 본당을 위한 참고 사항: 쉐어라이프 본당 모금 운동을 돕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필요한 내용에 따라 아래의 공지 사항을 변경하십시오.

본당의 쉐어라이프 모금 자원봉사자가 되어 주십시오

본당 쉐어라이프 모금을 돕는 것은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활발하게 쉐어라이프 모금이 진행되는 1월부터 7월 말까지 최소한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쉐어라이프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은 sharelife.org/voluntee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ww.surveymonkey.com/r/ShareLife 에 등록하시거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본당 사무실에 문의해 주십시오.

쉐어라이프에 보내주시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우편 모금으로 참여하시는 본당들은 모금 기간 중 언제든지 다음의 공지 사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기부를 통해 웨어라이프를 지원해 주십시오

한달에 한번씩 내시는 자동이체(PAG) 방법은 한 해에 걸쳐 내실 웨어라이프 기부금을 나누어 내실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웨어라이프 우편물에는 자동이체(PAG)를 선택할 수 있는 응답 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oid 라고 기재한 한 장의 수표를 작성하신 양식과 함께 본당 사무실에 제출하시거나, 현금 바구니에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동이체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slife@archtoronto.org 혹은 416-934-3411 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웨어라이프에 보내주시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웨어라이프 본당 모금 운동- 2019년 3월 6일부터 7월 31일까지

사순 제 1 주일

2019년 3월 10일

웨어라이프 기관들을 지원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웨어라이프 모금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복음을 실천하도록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어떤 것들이 복음을 실천하는 예가 될까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보살피는 미혼모를 도와 준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하거나, 난민 가족들을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43년 동안 우리 기관들이 제공한 열정적이고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매년 사순 기간 동안 진행되는 대교구의 모금 운동에 참여하셔서 지원해 주십시오!”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3월 31일은 웨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사순 제 2 주일

2019년 3월 17일

젊은 엄마들을 도와줌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19살에 엄마가 된 아니카의 애인은 그녀를 점점 더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만 있던 그녀가 웨어라이프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인 로즈 오브 샤론으로 찾아 왔습니다. 그녀와 아들은 건강한 관계라는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아니카는 애인의 행동을 참아야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은 아니카와 아들이 살 수 있는 적절한 아파트를 찾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니카는 “전에는 나 혼자서도 해 낼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로즈 오브 샤론의 도움으로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3월 31일은 웨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사순 제3 주일
2019년 3월 24일

사는 것이 너무 바쁠때 어떻게 이웃에게 복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서 자원 봉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도 쉼어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도움으로써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일요일은 첫번째 쉼어라이프 모금 주일입니다. “복음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을 기도 안에서 생각하시고 정성으로 본당 쉼어라이프 모금에 기부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 3월 31일은 쉼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사순 제4 주일: 첫번째 쉼어라이프 주일
2019년 3월 31일

지역 사회와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실천하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물론, 전세계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는 쉼어라이프 모금 운동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가 분명할 때도 있고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삶에 항상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쉼어라이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오늘은 쉼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사순 제5 주일
2019년 4월 7일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발달 장애가 있는 66살의 벤은 90세이신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없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들을 돌볼 수 없을 때 누가 아들을 돌봐 줄 수 있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쉼어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메리 센터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메리 센터 직원은 벤을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보조자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직원은 또한 벤이 메리 센터가 운영하는 한 그룹 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룹 홈 직원들은 물론, 같이 사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고 조만간 좀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벌써 자신이 살 곳에 정을 붙이고 소속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쉼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2019년 4월 14일

사제 성소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마틴 디쿠앙고는 사제 성소에 대한 분별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 어거스틴 신학교가 운영을 하는 기숙사인 세라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극적으로 바뀌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현재 성 어거스틴 신학교 3학년 학생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틴은 “저와 같은 젊은 청년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제 서품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성 어거스틴 신학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웨어라이프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5월 5일은 웨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예수 부활 대축일

2019년 4월 21일

즉각적인 정신 건강 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정신 건강 문제는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토론토 대교구안의 5개의 가톨릭 가족 기관들에서 예약이 필요없는 워크-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워크-인 상담의 목적은 장기적인 상담을 받지 않고도 자주 내담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내담자들은 처해 있는 힘든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동안 자신감이 상당히 증가했다고 말합니다.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단 하나의 재정적인 자원이 웨어라이프인 기관들도 있습니다. 웨어라이프 기관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5월 5일은 웨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부활 제2주일

2019년 4월 28일

캐나다에 처음으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며 복음을 실천하기

라시다는 이집트에서 수년간 가정 폭력을 참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세 아이들에게도 손찌검을 할 것 같아 무서움에 떨며 사는 동안 캐나다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라시다와 아이들이 토론토에 도착했을 때는 영어로 말도 못했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가톨릭 크로스 컬처럴 서비스 (CCS)를 알려주었습니다. CCS는 라시다와 이민 절차를 알아보고 여러가지 필요한 자원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그녀는 “CCS가 저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에 살며 제가 쓸 수 있는 약간의 돈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이들이 안전하며 행복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일요일, 5월 5일은 생명의 나눔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부활 제3 주일: 두번째 쉐어라이프 주일

2019년 5월 5일

정의와 사랑 안에서 복음을 실천하기

쉐어라이프는 곧 “정의와 사랑 안에서 가톨릭 활동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방향인 사목 지침에 의해 세밀하게 계획된 신뢰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과 이 기관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지원은, 정의와 사랑의 행위가 실현되는 경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가톨릭 신앙이 더 강인해졌다는 증거입니다. 토마스 콜린스

**오늘은 쉐어라이프 주일입니다.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부활 제4 주일

2019년 5월 12일

약물 중독자 돕기를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아담이 한 문장을 완전하게 말할 수 있게 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커브넌트 하우스의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들어 왔을 때는 겨우 한 두 마디 정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문제 상담원은 긴 시간의 노력으로 아담의 마음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멘토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긍정적인 관계에 힘입은 그의 미래는 여러가지 가능성과 함께 밝은 앞날이 열려 있습니다.

**6월 2일 일요일은 생명의 나눔 모금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부활 제5 주일

2019년 5월 19일

본당의 청소년 사목을 지지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청소년 전담봉사자들을 위한 연수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십니까? 토론토 대교구내의 40명이 넘는 청소년 전담봉사자들이 수천명의 청소년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친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쉐어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가톨릭 청소년 본부(OCY)는 200명의 청소년 전담봉사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대교구 연수의 날을 포함해, 본당들을 방문하고 청소년 전담봉사자들을 훈련하고 네트워킹을 용이하게 합니다. OCY는 미래 세대를 위해 생기가 넘치는 교회를 확립하도록 도와줍니다.

**6월 2일 일요일은 생명의 나눔 모금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부활 제 6 주일
2019년 5월 26일

고립된 어르신들을 도움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3개월의 짧은 기간에 데비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33년동안 삶을 함께 하던 배우자와 사별을 했고, 다리를 잃게 되었으며, 이제는 사랑하는 애완 동물들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웨어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소 사이어티 오브 웨어링을 통해 제프라고 하는 자원봉사자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인 제프는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외에도, 데비의 평생 숙원이었던, 글을 제대로 읽는 것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비록 데비가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녀의 삶은 다시 활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6월 2일은 생명의 나눔 모금 주일입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십시오.

예수 주님승천대축일
2019년 6월 2일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작년에 웨어라이프가 지원하는 필 더퍼린 가톨릭 가족 서비스 기관을 통해 3,2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 부부 및 가족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은 허리 부상 보다도 더 앞서 직장을 걸근하는 첫째 이유가 되었습니다. 정신 건강 증진 서비스는 내담자들이 걸근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더퍼린 가톨릭 가족 서비스 기관을 비롯한 웨어라이프 기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나눔 주일입니다.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
2019년 6월 9일

여러분들이 내시는 기부금의 영향을 최대화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SE Health 에 의해 운영되는 웨어드 서비스 이니시에티브 (Shared Services Initiative)는 인사 관리, 재무 서비스 및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 웨어라이프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기관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여러 기관들은 업무의 정확성과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웨어라이프 기관들이 주도하는 계획들을 통해 관리 비용은 줄이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기부금의 최대한의 배당 금액이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sharelife.org 혹은 본당을 통해 웨어라이프에 정성이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대축일
2019년 6월 16일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캐나다 전역에는 하룻밤을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이 없는 16세부터 24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하루에 6,000명이나 됩니다. 이 숫자는 집 없는 사람들의 20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커브넌트 하우스가 운영하는 쉼어라이프의 지원을 받는 라이츠 오브 페세지 프로그램은 토론토 거리를 배회하는 집 없는 젊은이들이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에게 조언과 도움을 베풀어 주는 멘토와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쉼어라이프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시는 것은 위험에 처한 젊은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sharelife.org 혹은 본당을 통해 쉼어라이프에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2019년 6월 23일

개발도상국들에 식량 원조를 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29살인 이마는 엘살바도르에서 4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녀가 재래 시장에서 생활용품을 팔아 하루에 버는 돈은 겨우 5달러입니다. 이 돈으로 다섯명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 자선 단체가, 쉼어라이프의 지원을 받는 아동을 위한 캐나다 식량 원조 기관에 (CFFC) 도움을 청했습니다. 곧 CFFC는 식량, 의류, 장난감들을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마는 그녀의 가족을 먹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으며 안심이 되었습니다.

sharelife.org 혹은 본당을 통해 쉼어라이프에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연중 제 13 주일
2019년 6월 30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인근에 폭력배들이 나타나곤 하는 곳에서 혼자 딸을 키우고 있는 트리니티의 엄마는, 딸이 방과후에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몰라 무척 염려가 되었습니다. 엄마는 트리니티를 쉼어라이프의 지원을 받는 세인트 존 폴 가족 센터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시켰습니다. 센터는 숙제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외에도, 수업료가 굉장히 비싼 음악 교육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현재 15살이 된 트리니티는, 그녀가 받은 것처럼 다른 아이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sharelife.org 혹은 본당을 통해 쉼어라이프에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연중 제 14 주일
2019년 7월 7일

불안감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대학생인 크리스틴은 최근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별로 인한 상실감은,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는 것은 물론 공부도 할 수 없을 만큼 극도의 불안으로 이어져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쉐어라이프가 지원하는 심코 카운티의 가톨릭 가족 서비스 기관에 있는, 워크-인 클리닉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첫번 상담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몇번 더 받기로 했습니다. 상담자의 도움으로 크리스틴의 공황 장애를 유발시킨 원인을 찾게 되었고, 불안감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가지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제는 일상 생활을 잘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방법을 습득하였으며,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31일 전까지 sharelife.org 나 본당을 통해 쉐어라이프에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연중 제 15 주일
2019년 7월 14일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복음을 실천하기

여러분이 청각 장애로 말을 알아 듣지 못하는데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이 수화를 모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부모님이 간단하게 의사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기쁨과 슬픔을 비롯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쉐어라이프 기관인 사이렌트 보이스는 부모를 비롯한 가족이 공통 언어인 수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북미에서 사용되는 수화와 청각 장애인들의 문화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한 어머니는 “사이렌트 보이스가 가족 의사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매우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사이렌트 보이스는 700 명이 넘는 청각 장애자들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쉐어라이프 본당 모금은 7월 31일까지입니다. sharelife.org 이나 본당을 통해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연중 제 16 주일
2019년 7월 21일

가정 폭력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여성이 가정 폭력을 당하면 상담, 법적 경비 보조, 어린이 보호 서비스, 아이 돌봄 등 여러가지 서비스가 갑자기 한꺼번에 필요해집니다. 매년 필 지역의 세이프 센터는 위에 언급한 서비스를 포함한 여러가지 서비스를 안전한 장소에서 여성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쉐어라이프의 지원을 받으며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10개 기관 중의 하나인 가톨릭 가족 서비스 기관 필-더퍼린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필요한 시간에 안전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담자중의 한 명인 사샤는 “세이프 센터에서 느낀 안전과 따뜻한 정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지원은 제 삶을 다시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쉐어라이프 본당 모금 운동은 7월 31일까지 입니다. sharelife.org 혹은 본당을 통해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

연중 제 17 주일
2019 년 7 월 28 일

형제 자매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기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도움이 없다면 형제 자매들이 필요로하는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복음을 실천하려는 쉐어라이프의 사명을 수행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만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형제 자매들의 안녕을 위해 나아감으로써 끊임없이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토마스 콜린스 추기경, 토론토 대교구

이번 주말이 쉐어라이프 본당 모금 운동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7 월 31 일 전까지 sharelife.org 혹은 본당을 통해 정성 어린 봉헌을 해 주십시오.